



numbers  
vol. 315

농어촌 교회 실태

농어촌 목회자의 어려움,  
‘적은 사례비’보다 ‘사역 열매 부재/비전 상실’이 더 크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전직 대통령 평가
- ② 고령층의 노동과 소득 공백기

2025. 12. 16.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 농어촌 목회자의 어려움, ‘적은 사례비’보다 ‘사역 열매 부재/비전 상실’이 더 크다!

한국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심화되며 지역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농어촌 교회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 최근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에서 실시한 ‘농어촌 교회 실태 조사’에서도 교회 절반 가까이가 출석교인 20명 미만의 소형교회였고, 교인 10명 중 7명이 60대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심각한 고령화와 교인 감소 흐름이 확인되었다.

특히 농어촌 목회자들이 가장 크게 호소한 어려움은 ‘사역 열매의 부재’였다(51%). 또 20명 미만 교회의 절반이 10년 후 농어촌 교회의 소멸위기를 예상했다. 그러나 12%는 활성화되어 교인이 늘 것이라는 긍정적 예측을 내놓았다. 여전히 많은 목회자들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며(61%), 농어촌 교회의 발전 가능성을 여전히 믿고 있었다(57%).

이번 <넘버즈 315호>가 농어촌 교회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다시 한번 조명하고, 농어촌 교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며 실질적인 관심과 대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기장총회 전국 농어촌 교회 실태 조사

###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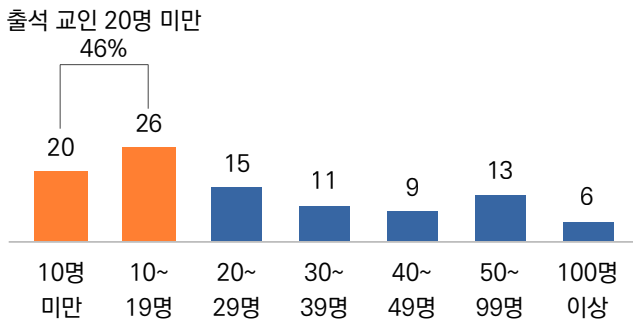
구분	내용
조사 대상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소속 전국의 농어촌 교회 목회자
표본 규모	총 209명(유효표본)
조사 방법	온라인/모바일 조사 - 홈페이지에 조사 링크를 팝업으로 띄움 - 문자 메시지로 693명에게 조사 링크를 3회에 걸쳐 발송
표본 추출	편의추출방법(Convenience Sampling)
표본 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25년 7월 5일 ~ 2025년 7월 17일 (총 12일간)
조사 주체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농촌선교특별위원회
조사 기관	목회데이터연구소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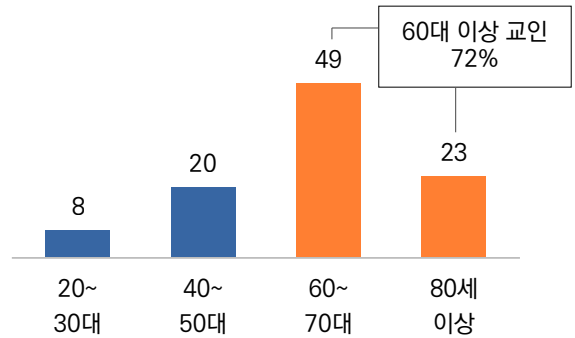
## [농어촌 교회 기본 현황] 농어촌 교회, 출석교인 20명 미만이 거의 절반!

- 최근 발표한 '기장총회 농어촌 교회 기초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농어촌 교회의 전반적 실태를 살펴본다.
- 먼저 농어촌 교회 목회자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매주 평균 주일예배에 출석하는 성인 교인 수를 물은 결과, '10명 미만'이 20%, '10~19명' 26%로 출석교인 20명 미만이 46%였다.
- 한편 출석교인의 연령 분포(지난 1년간, 주일 예배 참석자 기준)를 보면 '60~70대'가 49%로 가장 많았고, '80세 이상'이 23%로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 교인 비율이 72%로 10명 중 7명꼴로 나타났다.

[그림] 평균 출석 성인 교인 수 (농어촌 교회 목회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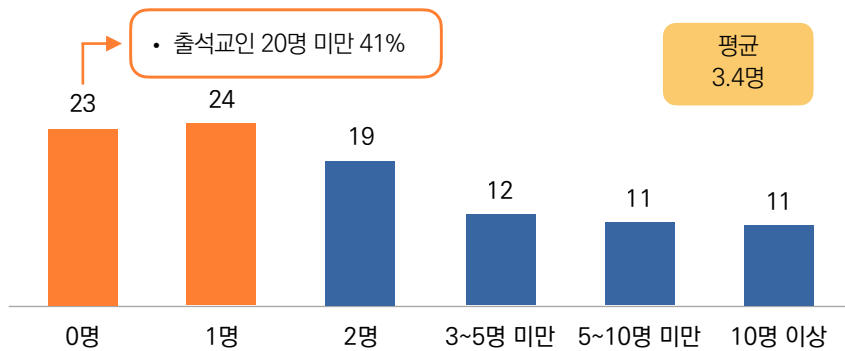
[그림] 연령별 출석 교인 구성비 (농어촌 교회 목회자, 평균, %)



## 농어촌 교회 2곳 중 1곳, 지난 3년간 새신자 수 1명 이하!

- 최근 3년간 새신자 수를 보면 '0명' 23%, '1명' 24%로 1명 이하가 절반에 가까웠다(47%).
- 특히 '새신자 없음(0명)' 비율은 20명 미만 소형 교회일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최근 3년간 평균 새신자 수 (농어촌 교회 목회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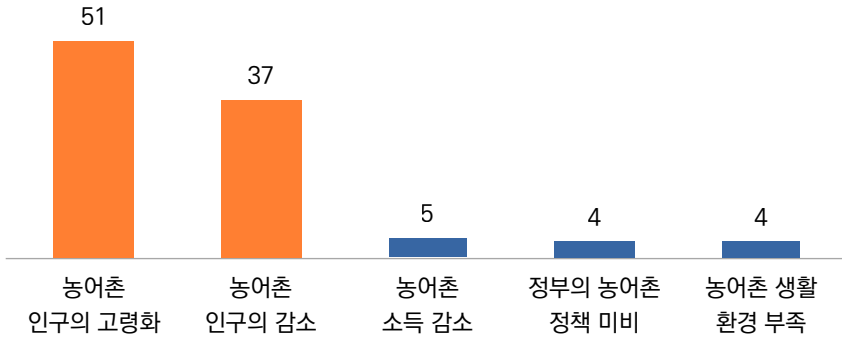
# 02

## [농어촌 목회 현실]

### 농어촌 교회가 가장 우려하는 현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 현재 농어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가 51%로 가장 높게 꼽혔으며, '농어촌 인구의 감소'(37%)가 뒤를 이었다.
- 이는 농어촌 교회 목회자가 농어촌 경제 문제나 정책 미비보다 인구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는 지역 소멸 위험과도 직결된 핵심 요인이기에 그 우려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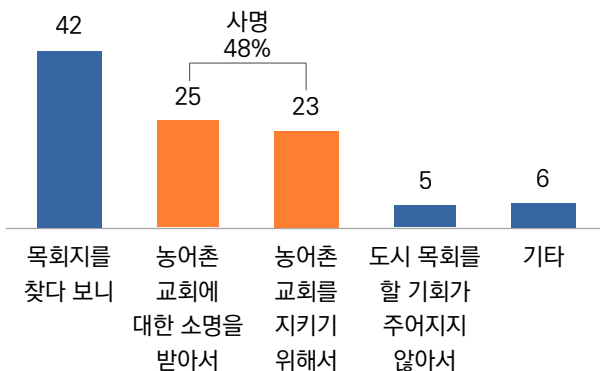
[그림] 농어촌 현실의 어려움 (농어촌 교회 목회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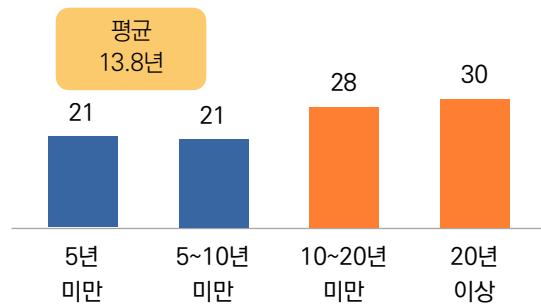
## 농어촌 목회 이유, 사명 48%!

- 농어촌 목회를 하는 이유로는 '목회지를 찾다 보니'가 42%로 가장 높았고, 이어 '농어촌 교회에 대한 소명' 25%, '농어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23%, '도시 목회를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5% 순이었다.
- 농어촌 목회의 절반은 목회지를 찾다가 우연히, 절반은 사명감(농어촌 교회에 대한 소명+농어촌 교회 수호)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농어촌 교회 목회자의 농어촌 목회 기간을 보면, '20년 이상'이 30%, '10~20년 미만' 28% 등의 순이었고, 전체 평균은 13.8년이었다.

[그림] 농어촌 목회 이유 (농어촌 교회 목회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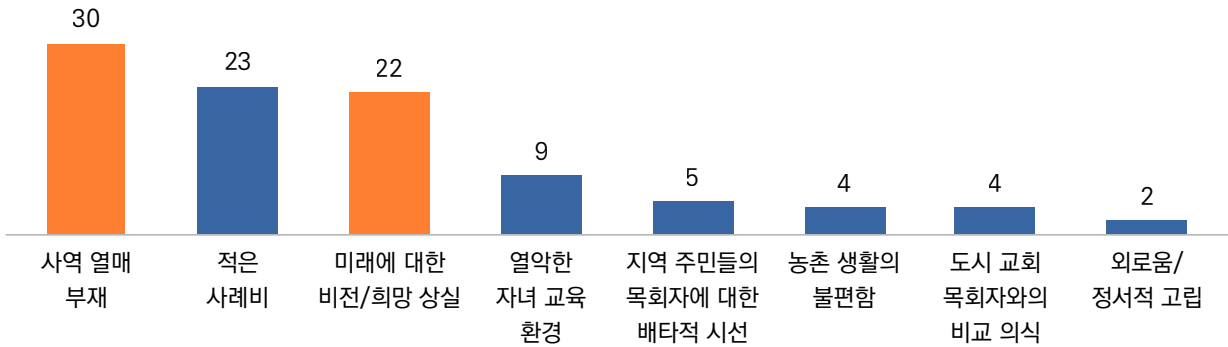
[그림] 농어촌 교회에서 목회 기간 (농어촌 교회 목회자, %)



## 농어촌 목회자의 어려움, '적은 사례비'보다 '사역 열매 부재/비전 상실'이 더 크다!

- 농어촌 목회자가 느끼는 어려움을 살펴보면, '사역 열매 부재'가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다음으로 '적은 사례비' 23%, '미래에 대한 비전 상실' 22%이 비슷하게 응답됐다. 사실상 농어촌 목회의 가장 큰 고민은 '적은 사례비'보다 '사역 열매 부재'와 '비전 상실'이 큰 압박 요인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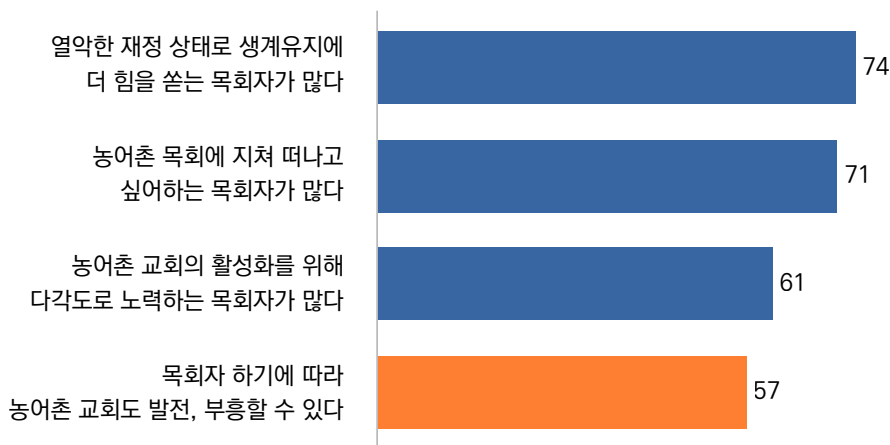
[그림] 농어촌 목회자로서 느끼는 어려움 (농어촌 교회 목회자, %)



## 농어촌 목회자 절반 이상, 농어촌 교회도 '부흥 가능성 있다'!

- 농어촌 목회자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열악한 재정 상태로 생계 유지에 더 힘을 쏟는 목회자가 많다'(74%)와 '농어촌 목회에 지쳐 떠나고 싶어하는 목회자가 많다'(71%)가 가장 높았다. 이는 재정적 부담과 정서적 소진이 농어촌 목회를 떠나고자 하는 가장 큰 요인임을 보여준다.
- 반면 '농어촌 교회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목회자가 많다'(61%), '목회자 하기에 따라 발전·부흥 가능하다'(57%) 등 긍정적 인식도 함께 나타나, 목회자의 노력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농어촌 목회자의 현실 인식 ('매우+약간 동의한다' 비율\*, 농어촌 교회 목회자, %)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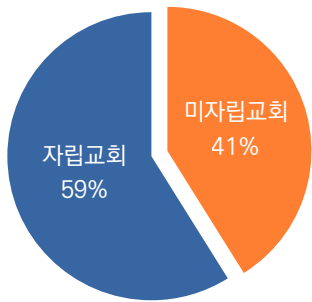
# 03

## [농어촌 교회의 과제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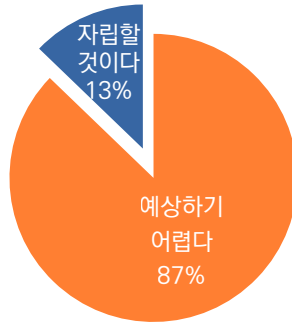
### 미자립 농어촌 교회, 교회 자립 가능성 '있다' 13%에 불과

- 농어촌 교회 자립 여부를 살펴보면 '자립교회'가 59%, '미자립교회'가 41%로 나타났다.
- 미자립교회 목회자에게 향후 자립 가능성을 묻은 결과, '자립할 것'이라는 응답은 13%에 불과했고, 87%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 농어촌 미자립교회 다수가 자립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장기적 재정 자립에 대한 전망이 매우 불확실함을 보여준다.

[그림] 교회 자립 현황 (농어촌 교회 목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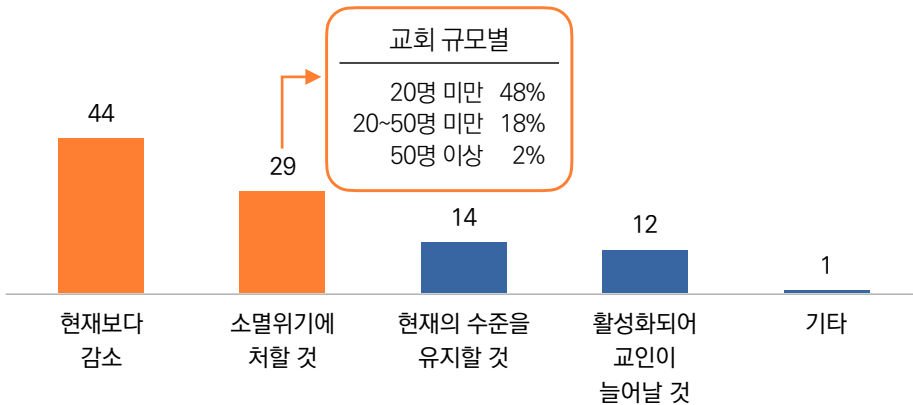
[그림] 교회 자립 예상 (미자립교회 목회자)



## 20명 미만 교회 절반, 10년 후 교회 소멸위기 예상

- 향후 10년 후 교회의 전망을 묻는 질문에 '현재보다 교인 수 감소'(44%)를 꼽은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소멸위기에 처할 것'이란 응답도 29%로 10곳 중 3곳이었다.
- '소멸위기 예상' 비율은 특히 20명 미만 교회에서 높아, 절반(48%)에 달했다. 다만, '활성화되어 교인이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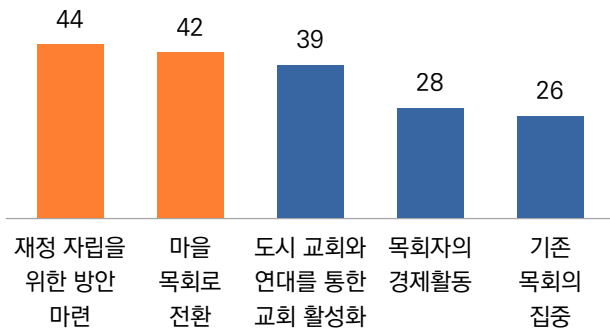
[그림] 10년 후 농어촌 교회 전망 예상 (농어촌 교회 목회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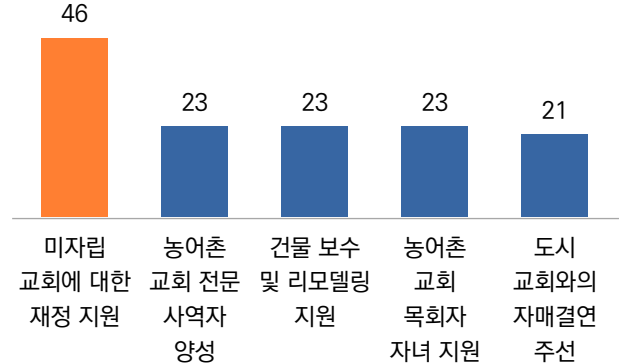
## 농어촌 교회 생존 과제 1순위, 개교회·교단 모두 '재정 확보'!

-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에게 교회 생존과 발전을 위해 개교회 차원과 교단 차원에서 필요한 노력을 묻은 결과(1+2순위), 모두 '재정' 문제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했다.
- 2위는 개교회 차원에서는 '마을 목회'(42%)를, 교단 차원에서는 '농어촌 교회 전문 사역자 양성'(23%)를 언급했다. 이는 농어촌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농어촌 교회에 적합한 사역 모델을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농어촌 교회 생존과 발전을 위한 노력: 개교회 차원 (농어촌 교회 목회자, 1+2순위, 상위 5개, %)



[그림] 농어촌 교회 생존과 발전을 위한 노력: 교단 차원 (농어촌 교회 목회자, 1+2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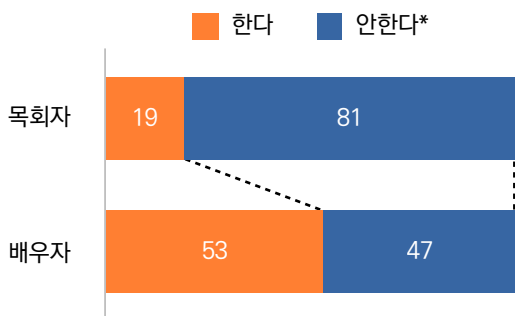


##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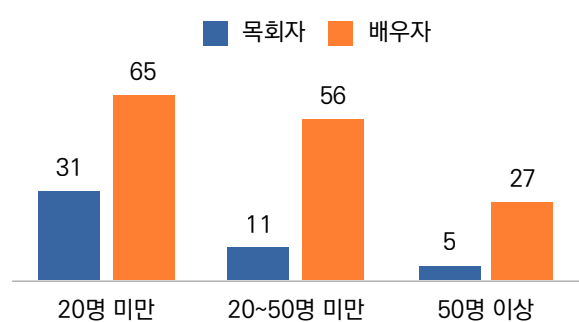
### [농어촌 목회자의 가정 경제] 목회자 배우자 절반 이상(53%), 현재 경제활동 중!

- 이번에는 농어촌 교회 목회자의 가정 경제 상황을 살펴본다.
- 농어촌 목회자의 이중직 현황을 보면, 목회자 5명 중 1명(19%)은 현재 이중직을 갖고 있으며, 목회자 배우자의 경제활동 비율은 53%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교회규모별 목회자/배우자의 이중직 실태를 살펴보면 출석교인 20명 미만 초소형 교회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이중직 비율을 보였다. 농촌 목회에 있어 배우자의 헌신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이중직/경제활동 비율 (%)



[그림] 교회규모별 이중직 비율 ('하고 있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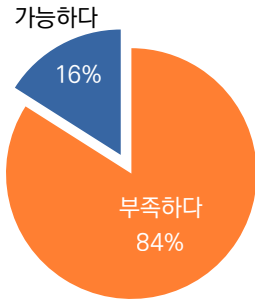


\*이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음, 이중직에 대해 고민중, 기타, 한 적 없음을 합한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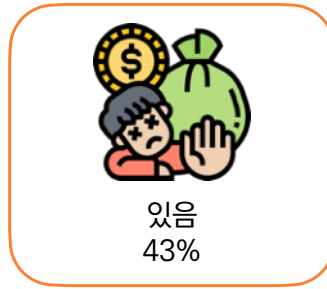
## 농어촌 목회자 대부분(84%), 현재 사례비만으로는 가정생활 어렵다

- 교회 사례비만으로 가정생활이 가능한지 묻은 결과, '가능하다'는 응답은 16%에 그쳐, 대부분의 농어촌 목회자가 부족한 사례비(84%)로 인해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또, 가정 부채가 있는 경우도 43%로 절반 가까이에 달했다.
- 이종직 찬반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찬성' 53%, '상황에 따라 고려할 수 있다' 43%가 대다수를 차지해, 목회 현 실상 이종직을 불가피한 대안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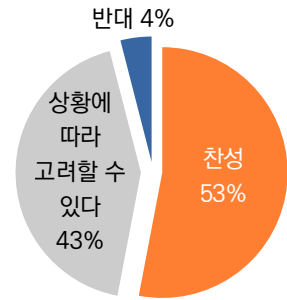
[그림] 교회 사례비로 가정생활 가능 여부 (농어촌 교회 목회자)



[그림] 가정 부채 유무 (농어촌 교회 목회자)



[그림] 이종직에 대한 찬반 (농어촌 교회 목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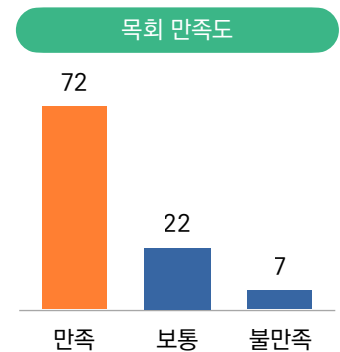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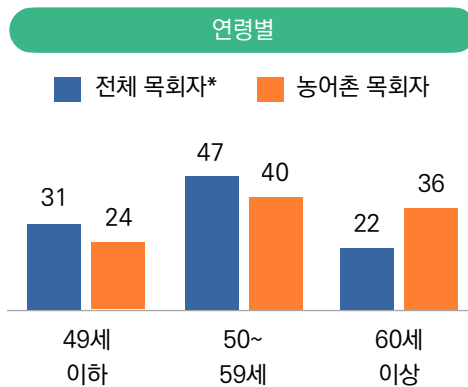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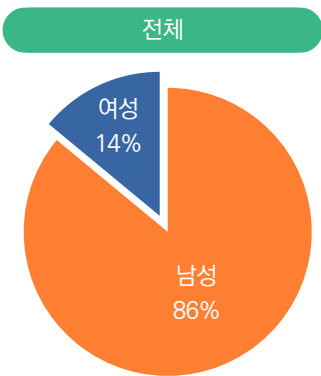
## 05

### [농어촌 목회자 Profile 분석]

농어촌 목회자, 전체 한국교회 평균보다 고령화, 목회만족도는 72%

- 농어촌 교회 목회자의 일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성별은 '남성'(86%)이 '여성'(14%)보다 압도적으로 높았고, 연령은 '50~59세' 40%, '60세 이상' 36%, '49세 이하' 24%로 전체(전국) 목회자 대비 '49세 이하' 비중은 낮고(전체 31%, 농어촌 24%), '60세 이상'은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전체 22%, 농어촌 36%).
- 농어촌 교회 목회자가 전체 한국교회 목회자 평균보다 고령층 비율이 더 높고, 고령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한편 목회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만족' 72%로, 농어촌 목회자 10명 중 7명은 현재 목회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족 비율은 7%에 불과했다.

[그림] 농어촌 목회자 일반 특성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희망친구 기아대책, 한국교회 트렌드 2026(목회자 1차 조사), 2025.09.(전국 담임목사 500명, 모바일 조사, 2025.05.23.-05.28.)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 이번호 요약

### 1. 농어촌 교회, 60대 이상 교인 72%로 초고령화!

- 농어촌 교회 출석교인의 연령 분포를 보면 '60~70대'가 49%로 가장 많았고, '80세 이상'이 23%로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 교인이 10명 중 7명꼴(72%)인 셈이다.

### 2. 농어촌 목회자의 어려움, '적은 사례비'보다 '사역 열매 부재/비전 상실'이 더 커!

- 농어촌 목회자가 느끼는 어려움을 살펴보면, '사역 열매 부재'(30%)가 가장 높고, 이어 '적은 사례비'(23%), '미래에 대한 비전 상실'(22%) 순이었다. 사역 열매 부재는 비전 상실과도 연관된 문제이기에 사실상 사례비 보다는 목회 비전 상실과 사역 부재가 가장 큰 고민임을 알 수 있다.

### 3. 농어촌 목회자 절반 이상, 농어촌 교회도 '부흥 가능성 있다'!

- 농어촌 목회자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보면 '열악한 재정 상태로 생계 유지에 더 힘을 쏟는 목회자가 많다'(74%)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다만 '목회자 하기에 따라 발전·부흥 가능하다'(57%)는 긍정적 인식도 절반 이상이었다.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영상] 마을목회로 '행복농촌' 만든다...상주 낙동신상교회 (GOODTV NEWS)

## 관련 성경 구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 목회 적용점

농어촌 교회의 위기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라는 구조적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이제 농어촌 교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새로운 사역의 재정립이 절실하다. 그 핵심 방향은 지역 공동체 회복으로의 확장, 즉 마을 목회로의 전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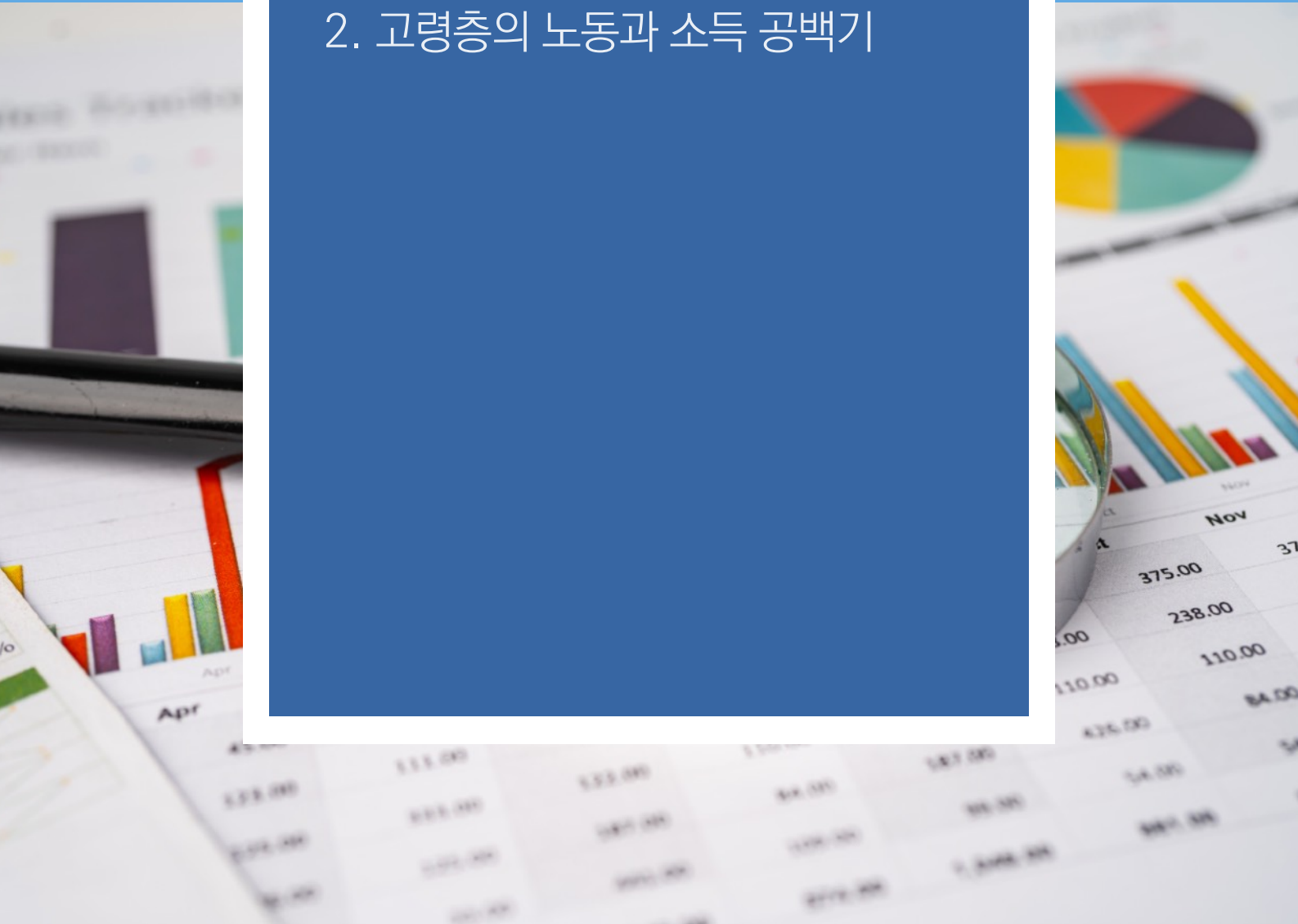
첫째, '마을 목회'는 교회가 지역과 단절된 공간이 아니라, 마을의 일상 속에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마을 생활협동조합 구성, 공동작업장 운영 등은 지역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다. 다만 마을 목회를 농어촌 현장에 도입·적용하기 위해 성공 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정리한 메뉴얼을 총회 차원에서 제작·보급하고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제는 사역의 열매를 성도의 수로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성도와 지역 주민이 삶의 만족과 행복감을 경험하는지에 초점을 두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층 맞춤 프로그램(취미 소그룹, 죽음·노후 준비 세미나, 지역 보건소와 연계한 치매 예방 교육 등)을 개발하는 등 농어촌 교회 인구 구조와 개교회의 특성을 살린 사역 방향을 다시 세워야 한다.

셋째, 목회자의 고립을 줄이기 위해 총회·노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재정 지원, 상담·멘토링 프로그램,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등은 목회 지속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 농어촌 교회가 사라지는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다시 살아나는 시대가 되도록 교단과 지역 교회가 함께 책임지고 동행해야 한다.

#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전직 대통령 평가
2. 고령층의 노동과 소득 공백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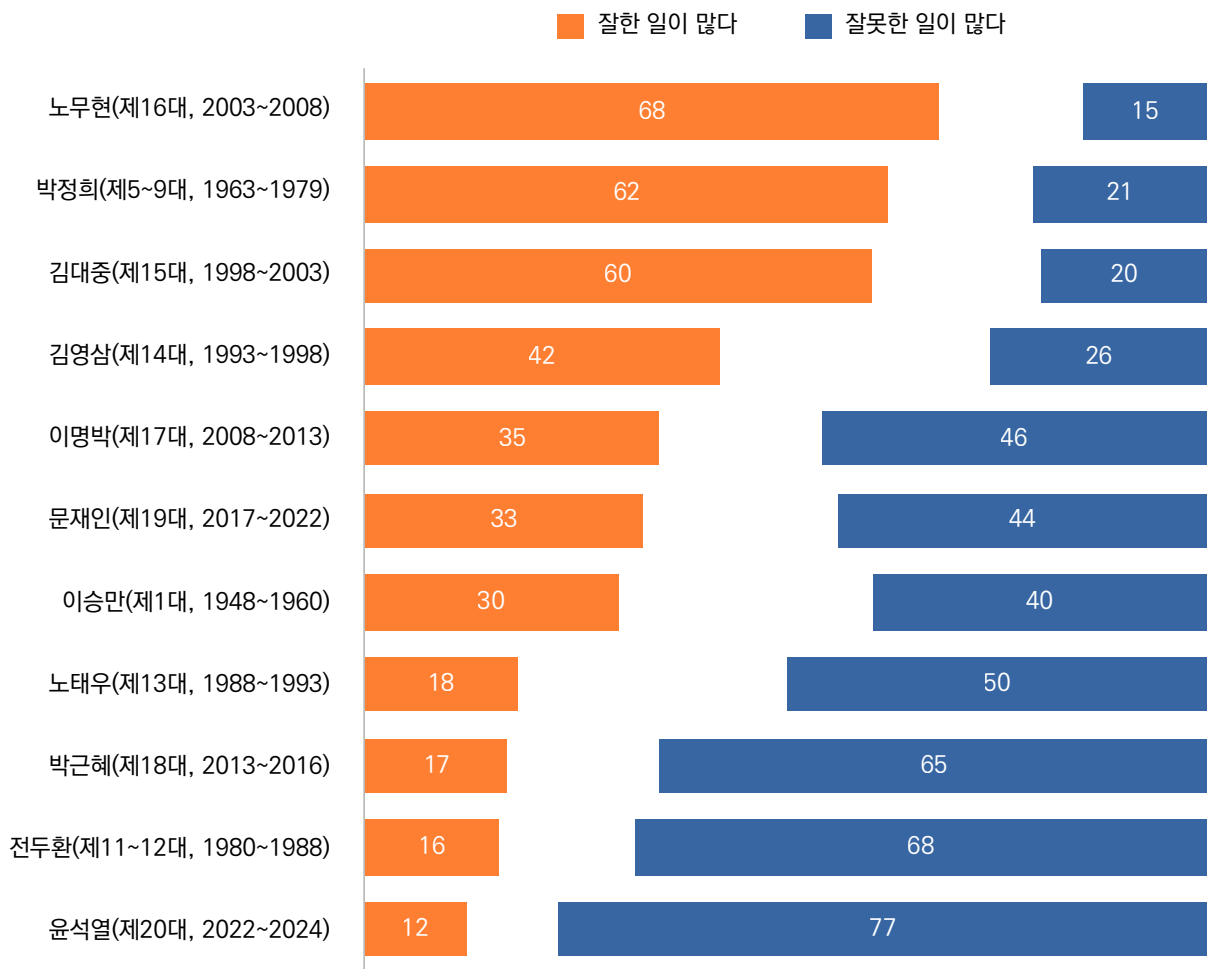


## [전직 대통령 평가]

# 전직 대통령 평가, '잘했다' 노무현 vs '잘못했다' 윤석열!

-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부터 제20대 윤석열까지 모두 13명이다. 그중 재임 기간이 짧았던 두 대통령(제4대 윤보선, 제10대 최규하)을 제외한 전직 대통령 11인 각각의 공과(잘한 점과 못한 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본다.(한국갤럽)
- 11명의 대통령을 '잘한 일이 많다' 응답 기준으로 보면 노무현이 68%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박정희(62%), 김대중(60%), 김영삼(42%) 등의 순이었다.
- 반대로 '잘못할 일이 많다' 응답에서는 윤석열이 77%로 1위였고, 이어 전두환(68%), 박근혜(65%), 노태우(50%) 순이었다.
- 한편, 과실보다 공로가 더 높게 응답된 대통령은 노무현,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등 4명에 그쳤다.

[그림] 전직 대통령 개별 공과(功過)\*



※출처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43호, 2025.11.28.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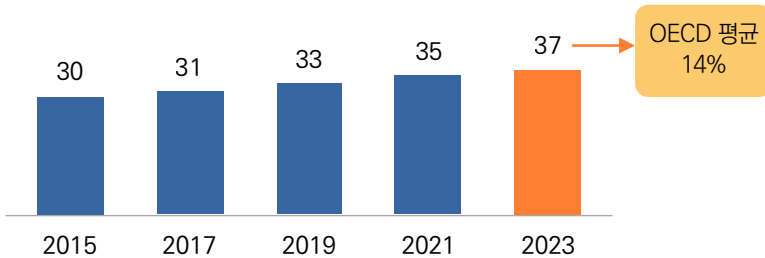
\*단기 재임한 제4대 윤보선, 제10대 최규하 제외, 2점 척도



## [고령층의 노동과 소득 공백기]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37%), 아직 일하는 중!

-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60세인 법정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법안을 여당이 추진중이다. 이러한 논의가 제기되는 배경에는 초고령사회 진입, 국민연금 수급 연령의 연기, 고령층의 소득 공백 문제 등이 자리한다. 결국 정년연장 요구는 고령층의 생계 유지와 생존권 보장이라는 현실적인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다.
-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노인(65세 이상) 중 실제 일하고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2023년 기준 노인의 고용률은 37%로,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취업 상태였다. 이는 같은 해 OECD 평균(14%)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한국 고령층의 높은 경제활동 참여를 보여준다.
- 또한, 노인 고용률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고용시장 내 고령층의 비중은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노인(65세 이상) 고용률\* (%)



※출처(2015~2021년) :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2023 고령자 통계, 2023.0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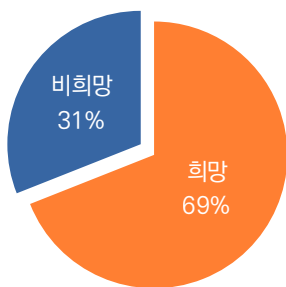
※출처(2023년) : 국민연금연구원, 연금포럼 가을호 Vol.99(국민연금과 고령자 노동 공급), 2025.10.

\*고용률: 해당 연령대 전체 인구 중 취업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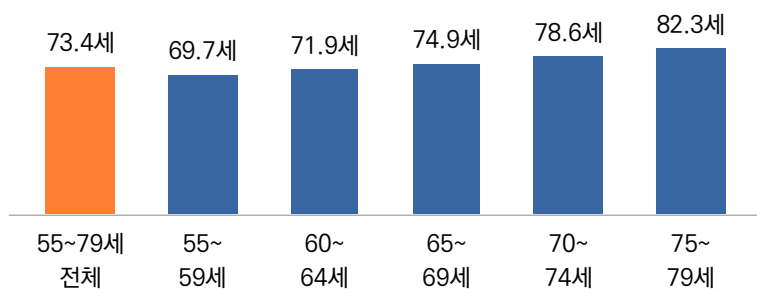
## 고령층이 희망하는 근로 연령, 평균 73.4세!

- 고령층(55~79세)의 향후 근로 의향률과 소득 공백기 문제를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국가데이터처)를 통해 살펴본다.
- 한국 고령층의 장래 근로 희망률은 69%로, 고령층 10명 중 7명이 계속 일을 하기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이 희망하는 근로 연령은 평균 73.4세로 나타났다.
- 세부 연령별 근로 희망 연령을 보면 '55~59'세는 평균 69.7세로 해당 구간 최대 연령(59세)과 10살 이상 차이를 보였고, 그 격차는 점차 줄었으나 '75~79세'도 82.3세까지 일하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나이가 들어서도 일하기 원하는, 혹은 일할 수밖에 없는 한국 노인들의 현실을 보여준다.

[그림] 고령층의 장래 근로 희망률 (55~79세, 2025.05 기준)



[그림] 고령층의 평균 근로 희망 연령 (55~79세, 연령별, 2025.05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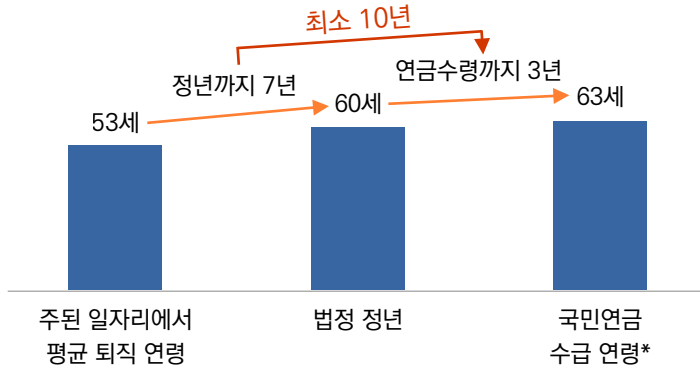


※출처 : 국가데이터처,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2025.08.06.

## 한국 고령층, 주된 직장 퇴직 후 연금 받기까지 최소 10년의 공백!

- 법정 정년과 실제 퇴직 연령 간의 간극,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 시점까지의 공백은 고령층의 소득 안정성을 위협하는 핵심 요소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로 7년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일반적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로,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로 더 늦춰진다.
- 종합해보면 주된 직장 퇴직 후 연금 수령까지 최소 10년 이상을 버텨야 하는 셈이다.

[그림] 법정 정년·실제 퇴직 연령·국민연금 수급 시기 간 차이: 소득 공백기



※출처 : 국가데이터처,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2025.08.06.

\*1961~1964년생 기준,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 정치

###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45호 \(2025년 12월 2주\)](#)

- 지방선거 결과 기대, 주요 정당별 호감도, 내란전담재판부

###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70호 \(2025년 12월 2주\)](#)

- 국정운영평가 평가, 비상계엄 1년 민주주의 영향, 현 국가경제 인식 등

## 사회 일반

### [신혼부부 2년째 100만쌍 밀돌아...집 있으면 10쌍 중 6쌍 유자녀\(종합\)](#)

연합뉴스\_2025.12.12.

### [1인 가구 첫 800만 넘어...절반은 "외로워"](#)

연합뉴스\_2025.12.9.

### [기부금 16조로 10년간 30% 늘었지만...GDP 대비 비중은 감소](#)

연합뉴스\_2025.12.14.

### [프랑스 제친 한국, '세계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 7위...1위는](#)

중앙일보\_2025.12.12.

### ["어머니 연명의료 중단" 울먹인 이창용...한은 '눈물의 보고서'](#)

중앙일보\_2025.12.11.

### [지역서 애 안 넣고 떠나는 이유 1위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연합뉴스\_2025.12.11.

### [가족 살해 후 스스로 생 마감... 그들 유서에 늘 적힌 세 단어](#)

중앙일보\_2025.12.16.

## 아동 · 청소년 · 청년

### ["경력만 찾는데, 우린 어디서 경력 쌓냐"...구직 손놓는 2030](#)

SBS Biz\_2025.12.14.

### ["취업? 여차피 어렵다"... 취준생 10명 중 6명은 '소극적 구직자'](#)

국민일보\_2025.12.10.

### ["이주배경아동, 휴대전화 사용 시간 더 길어... 디지털 방임 대응 필요"](#)

조선일보\_2025.12.11.

### [MZ세대, 팬데믹 거치며 서울·인천행...영호남 이탈 지속](#)

연합뉴스\_2025.12.16.

## 경제 · 기업

###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작년보다 매출 감소·정체"](#)

국민일보\_2025.12.12.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부자' 47만명...1년새 자산 8.5% 증가](#)

조선일보\_2025.12.15.

## [거리가 텅텅 비었다... '충격의 12월 어찌나' 무슨 일이 \[현장+\]](#)

한국경제\_2025.12.11.

## [직장인 33%가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 경험...회식·음주 강요도 괴롭힘](#)

한겨레\_2025.12.14.

## [개인정보 유출해도 기업 신뢰 회복?...이용자 70%는 "가능"](#)

연합뉴스\_2025.12.14.

## 국제 · 환경

### ["피곤하네..." 글라스도어 선정 올해 직장인의 단어 '피로'](#)

연합뉴스\_2025.12.14.

### [SNS의 또 다른 폐해? '비관적인 Z세대' 늘었다](#)

동아일보\_2025.12.15.

## 건강

### [치매 환자 100만명... 경도인지장애 단계서 막아야](#)

조선일보\_2025.12.11.

## 기독교 · 종교

### [신앙과 유튜브 알고리즘], (국민일보)

- [① 신앙 콘텐츠만 챙겨봤는데... 어? 극우 채널이 뜨네 \\_2025.12.10.](#)
- [② 12·3 계엄 '변곡점'... 기독교 정치 채널 조회수 급증 \\_2025.12.11.](#)
- [③ 기독교 정치 채널 속 혐오 언어, 정서적 오염 확산시켜 \\_2025.12.12.](#)
- [④ 신앙 전승방식마저 흐드는 알고리즘... 미디어 훈련 급해 \\_2025.12.15.](#)

## 트렌드

### ["PPT 시작합니다, 잘 살게요"...MZ세대의 유쾌한 상견례](#)

이데일리\_2025.12.9.

# 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영민, 김찬술, 한미경

##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정책연구소, 라인나우미디어,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퓨처처치연구소(FCI),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교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 후원 방법 (해외)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시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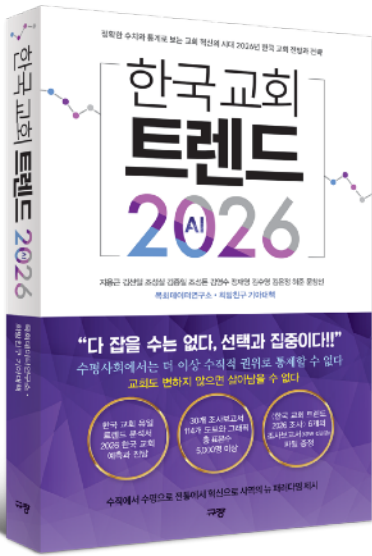
##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신규 후원**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세상의빛교회(이종필 목사), 월드비전교회(김영철 목사), 구리지구촌교회(손병덕 목사), 광성교회(정민철 목사), 박광호, 임원빈, 정대서, 김태호

# 연구소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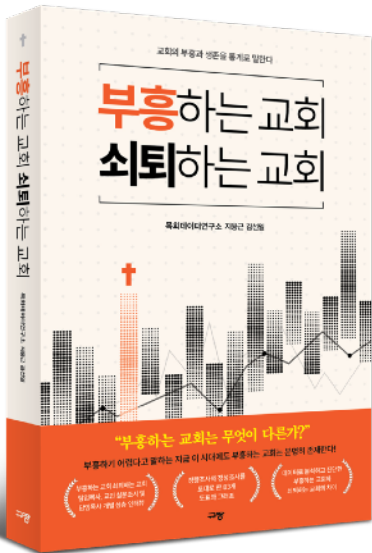
##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책 구입 안내

목회데이터연구소와 기아대책이 공동으로 준비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2026년도 예상되는 한국교회 이슈와 트렌드 10가지를 주제로 선정하였는데, 이 책이 내년도 목회 전략을 수립하는데 올바른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명민 간사)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책 구입 안내

목회데이터연구소는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를 출간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담임목사, 성도를 총 1,320명 조사하여 각각의 특징을 통계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명민 간사)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